

주일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입 레 송 Introit	다	같	이	All
✠ 경 배 찬 송 ... Hymn	256(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만이 내 반석	...다	같	이	All
✠ 성령충만을 위한 고백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다	같	이	All
✠ 주 기도 문 The Lord's Prayer	다	같	이	All
평 화 의 인 사 Greeting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	이	All
기 도 Prayer	고	일	신	장로
성 경 Scripture	출애굽기(Exodus) 1:15~22	신	지	현	집사
설 교 Sermon	어려울수록 When The More Suffering Comes	강	희	준	목사 Rev. Kang
찬 송 ... Hymn	342(새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	이	All
✠ 헌 금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All
✠ 축 도 Benediction	강	희	준	목사 Rev. Kang

✠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3/20(금)까지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속회 모임

조	속회명	인도자	일	시	장소	선교지
1	만나드예민	윤인영 이윤정 최석원 송영선				몽골 오병이어 홀리스 오병이어
2	포도나무 기우리마찬	백승구 김태환 김낙경 양만호	3월 속회는 3/21(토)까지			홀리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3	옥로겨여호와	김혜경 김영준 홍덕명 손광식	한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후 일정은 속회 카톡방 및 주보를 통해			아프리카 아프리카 몽골 홀리스
4	다생명마라	정사환 김정오 유경숙 오창호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홀리스 오병이어 홀리스 몽골
5	은온물댄여호와	문영주 조성훈 차상용 허덕자				오병이어 몽골 베트남 몽골

헌금 통계

일 반	2,517.00	구 제	0.00
작 정	600.00	속 회	65.00
십 일 조	10,724.40	선 교	100.00
감 사	2,080.00	기 타	50.00
꽃	0.00	3/8 헌금합계	16,136.40
3/8 건축헌금	220.00	10주간 헌금총계	228,141.90
2020년 건축헌금	4,246.00	2020년 예 산	1,150,000.00

예배 위원

	이번주(3/15)	다음주(3/22)
친 교 봉 사	없음	없음
영 접 위 원	김명옥, 김명숙, 정사환	김명숙, 장향실, 김선경
안 내 위 원	3월 고은자 광경화 최강환 박삼숙	4월 김동업 오송자 백혜리 박혜진
다음주 예배위원	기 도 김명숙	성경봉독 강희준

교회 소식

환 영

1. 환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기도회

1. 기도회 일정 변동: 주일 중보기도, 학부모 중보기도, 목요 중보기도는

3/21(토)까지 한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후 일정은

주보를 통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4차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2/26(수)~4/11(토) 사순절 기간

2020년 캠페인

1. 전교인 성경 1독 이상 하기
2.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3. 금요일예배,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30분씩 개인 기도하기
4. 주일 친교 후, 자신이 앉았던 의자 정리하기

기 타

1. 성경필사: 사순절 기간(2/26~4/11) 동안 전교인 성경필사를 합니다.

*범위: 출애굽기

2. 부활절 백합: 부활주일(4/12) 제단에 백합화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고일신 장로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세례와 입교: 부활주일(4/12)에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4/5(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십시오.

4. 영아방 봉사팀: 3/15(박삼숙), 3/22(이순임)

가정 예배

- 3월 둘째 주일 설교 말씀 "가시도 은혜"
- 본문: 고린도후서 12:5~10
- 찬송: 187(새255) 너희 죄 흉악하나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 본문 7절은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로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이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온 힘을 다 바쳤던 바울에게도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의 가시가 늘 존재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에게는 결점이자 약점, 부담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도에게 인간적인 가시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였다. 그리고 바울은 그제야 그렇게 없애고 싶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고 고백한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가 다 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고통, 열등감, 아픔, 상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한다. 대체 왜 '가시'가 우리에게 은혜인가?

1.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인 이유를 깨닫는다. 먼저는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지극히 커서 자신에게 그런 가시라도 없었으면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랑거리들로 자만에 빠졌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것이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곳에서 공부까지 한 기본적으로 상위층 사람인 데다가, 깊은 영적 체험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격도 남달라서 타인의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일을 잘못하는 마가를 책망하고, 베드로에게도 처신을 잘못한다고 면책을 할 정도였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자만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시들이다.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기억하면서 이것마저 없었으면 내 믿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2. 가시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였을 것이다. 바울은 그의 가시가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그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 정도의 향을 가진 장미는 가시가 많다. 이렇게 예쁘고 향기 좋은 꽃이 왜 가시가 많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장미가 살아남으려면 가시는 필수적이라고 한다. 줄기 중간중간 있는 가시들이 장미에 해를 끼치는 벌레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가시는 나름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의미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가시가 은혜인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된다.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유 아 부	오전 11시	203호	문 영 주
● 유 치 부	오전 11시	103호	김 연
● 유 년 부	오전 11시	성가대실	김 찬 미
● 초 등 부	오전 11시	호프채플	경 의 현
● 중 고 등 부	오전 10시	아가페 채플	황 선 웅
● 장 년 예 배	오전 9시 / 11시	본당	담 임 목 사

주일 교회학교

● 어 린 이 부	오전 10시 15분	학년별 교실	교 사 들
● 중 고 등 부	오전 11시	학년별 교실	교 사 들

주일 성경공부

● 한 어 청 년 부	오후 1시	210호	김 경 오
● College & Up	오후 1시	204호	황 선 웅
● 장 년 부	오전 10시	엠마오실	원 달 준

새벽예배

화요일~토요일	오전 6시	본 당
---------	-------	-----

금요 찬양예배

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본 당
---------	-------	-----

2020 남녀 선교회

남 선교회

야 고 보:	76년 이후
여 호 수 아:	71~75년
디 모 데:	66~70년
바 울:	56~65년
베 드 로:	45~55년
요 한:	44년 이전

여 선교회

라 헬:	80년 이후	한 나:	56~60년
마 리 아:	76~79년	도 르 가:	51~55년
마 르 다:	71~75년	루 디 아:	46~50년
룻 :	66~70년	사 라:	45년 이전
에 스 터:	61~65년		

오시는 길

I-65 → Exit 74B → Old Hickory Blvd 방향



섬기는 사람들

교 육 부	황 선 웅
주 일 학 교	경 의 현
찬 양 인 도 자	김 세 진
음 악 / 행 정	정 윤 중
성 가 대	백 유 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